

●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투덜거린 것처럼 여러분은 투덜거리지 마십시오. 그들은 파괴자의 손에 죽었습니다.

(코린토서 1 10장 10절)

원망이란 못난이들의 허약한 투정이다.

“부정한 헛바닥은 부정한 손보다 더 나쁘다.”

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빨리 자신의 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. 그 못된 습관이 자신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. 원망의 입술은 부정의 입술이다. 부정의 입술은 남도 죽이고 자신도 죽인다. 긍정적으로 말하고 창조적으로 말하는 입술이 되라. 그러면 자신도 잘 되게 하고 남도 잘되게 한다.